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9】

2012 4. 26.

러시아 외국인투자 유입동향과 우리 기업의 투자전략

목 차

I. 러시아 FDI 유입동향.....	1
II. 우리 기업의 대 러시아 투자현황	3
III. 우리나라의 러시아 투자전략	7

국별조사실

작성: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확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신흥투자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교류 대상국인 러시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투자환경 및 우리 기업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I. 러시아 FDI 유입동향

1. 연도별, 업종별 FDI 유입추이

□ 2008년을 전후하여 FDI 유입규모는 급등락 추세 시현

- 러시아 중앙은행에 의하면,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금액은 1998~2002년 중 연평균 30억 달러 수준으로 저조했으나 2003년 이후 급증해 2008년에는 연중 7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GDP의 4.5% 수준)를 기록하면서 신흥투자시장 중 중국에 이어 제2위 FDI 유입실적을 시현함.
-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연도별 FDI 유입액이 2003년 80억 달러, 2004~05년 평균 140억 달러, 2006년 297억 달러, 2007년 551억 달러, 2008년 750억 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러시아에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는 고 유가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되었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이 시행된 데 기인함. 특히, 2008년에는 전력산업의 민영화, 천연자원, 자동차 및 부동산 분야에 대한 대형 투자가 성사됨.
- UNCTAD에 따르면, 2008년 말 러시아에 대한 FDI 유입누계액이 2,140억 달러로 러시아 GDP의 12% 수준에 달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유동성경색과 이로 인한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09~11년 연평균 FDI 유입액은 442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됨.



<표 1> 대 러시아 FDI 유입액 추이

단위: 억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551	750	365	433	529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 독일 및 모스크바의 FDI 편중현상 지속

- 러시아에 대한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편중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사이프러스,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조세피난처로서 모-자회사간 자본이동 및 도피자본의 투자형태를 보여 최종적인 투자국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고, 실제로는 독일 및 네덜란드가 최대 투자국으로 분류됨.
-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지역으로는 모스크바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밖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9%), 사할린(8%), 칼루가(4%) 등의 순임.
 -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지역 중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투자 수요가 많으며, 사할린은 풍부한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지역이고 칼루가 지역은 모스크바 인근의 산업지대가 위치해 있음.

2.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환경 평가

□ 러시아의 기업경영여건, 낮은 수준 지속

-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는 매년 9월 말 세계 183개국에 대해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을 평가하고 있는데, 2011년 평가에서 러시아는 120위로 중하위권으로 분류됨. 러시아는 2006년 평가에서 96위(사상 최고수준)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0년 124위로 사상 최저순위를 기록하는 등 낮은 수준임.
- IFC가 러시아의 투자환경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2011년 기준)는 평가분야(10개) 중에서 전력확보(183위), 건축허가(178위), 대외무역(160위), 사업개시(111위), 투자자보호(111위), 조세납부(105위) 등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데 기인함.



□ 2011년 WTO 가입으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기대

- 2011년 12월 WTO 가입(2012년 중순 발효예정) 이후 러시아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관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써 러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세관 및 행정의 투명성 강화, 예측가능성 제고, 일관성 개선 등이 기대됨.
- 외국인투자 증대에 따른 경쟁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효율성 증대로 향후 10년간 GDP 규모가 11% 이상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함.
- 러시아는 1998년 재정위기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몇 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으나, 2000년 푸틴 정부의 집권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OECD 국가위험(Country Risk) 평가등급이 2011년에는 종전의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됨.
 - OECD 평가등급: 4/7등급(2010.1) → 3/7등급(2011.1) → 3/7등급(2012.1)

II. 우리 기업의 대 러시아 투자현황

1.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동향

□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9위 투자대상국

- 200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2006년 연중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급증하기 시작함.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투자사업으로 대러 투자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억 2,798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는 2011년 말 기준(누계)으로 434건, 18억 8,895만 달러로 우리나라 총 투자 누계액(51,449건, 1,903억 8,561만 달러)의 0.99%(금액 기준)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제19위 투자대상국임.



<표 2>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년 말
239,650	358,433	427,983	334,323	97,917	1,888,94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투자 집중경향

-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업종별 투자금액은 제조업이 총 투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소매업, 광업, 건설업, 농림수산업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중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의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의 순으로 투자함.
- 모스크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전자, 유통, 식품, 무역, 건축, 통신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삼성전자, 오리온, 진로, 한국야쿠르트, KT, LG전자 등임.
- 한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자동차 제조공장 설립을 위해 동반 진출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대부분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표 3>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직접투자 기업분포

모스크바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대우인터내셔널, 동아화성,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롯데호텔, 범한판토스, 비락,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시스템, 세영, 스트로이박, 알비엘에너지, 엔토팜, 오리온, 유포토스, 이에지씨, 진로, 포스코, 한국제강, 한국야쿠르트, 환웅에이치에스, KT, KT&G, LG전자, LG정보통신 등	대우, 대원산업, 동희, 두원공조,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신영금속,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유라코퍼레이션,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현대하이스코, NVH코리아 등

자료: KOTRA.



2. 우리 기업의 투자 성공사례

(1) 자동차 업계

□ 사업추진 배경

- 투자 당시 물류비용 절감, 통상마찰 완화 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신흥경제대국의 잠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생산거점(현지 직접생산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확충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
-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소싱 확대, 지역별 차별화된 차량 생산을 위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되는 가운데, 완성차 수출을 통한 현지 시장점유율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고관세율 등)이었음.
- 러시아의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율이 30%(11%)에 달해 현지 생산시 자동차 판매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도요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캠리를 생산하는 등 외국 자동차업계의 현지공장 설립이 본격화됨.

□ 투자 성공요인

-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러시아 소비자의 수입 중고차 또는 러시아제 승용차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수입차 선호 경향으로 자동차 현지매출이 급증한 데 기인함.
- GM(2008년 설립), 포드(2009), 도요타(2007) 등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판매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한 전략이 주효함.
- 특히, 생산 자동차의 가격대가 중산층의 소득수준에 부합하여 경쟁업체의 동급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며, A/S 및 하자보증 조건이 러시아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는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부품 특혜관세를, 주정부로



부터 세제 혜택, 부지 정지, 도로 및 전력 등 인프라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음.

- ① 수입부품 특혜관세: 기존 조립생산 대비 5~10% 관세인하 효과 (2011~18)
- ② 국산화 충족시 자동차부품 특혜관세(10/20/30%(24/40/54개월) → 1%) 적용
- ③ 법인세 인하(20%→15.5%) 및 재산세(2.2%) 면제 (2011~15)
- ④ 부지매입 특혜: 공장건설 완료 후 부지매입 또는 임대(49년) 선택 가능

(2) 가전 업계

□ 사업추진 배경

- 우리나라 가전업계는 러시아내 가전제품 시장점유율(판매실적)이 신장되면서 우리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상승함에 따라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함.
- 우리 기업은 현지 가전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도모해 왔으나, 판매법인의 영업만으로는 제품의 가격경쟁력 및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으로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함.
-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이에 대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선점효과는 물론,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경쟁력 제고, 환율 변동, 유가 급등 및 물류비용 상승 등에 대비한 수익성 안정화를 도모함.

□ 투자 성공요인

- 우리나라 가전 업계는 음악, 춤을 좋아하는 러시아 국민성을 고려한 록 페스티벌 등 각종 공연 개최, 축구, 마라톤 및 피겨스케이팅 등 스포츠 대회 후원 등을 통해 현지인의 기호에 부합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러시아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함.



- 또 상대적으로 문화 공연의 혜택이 적은 지방 순회에서의 다양한 문화행사 주관, 지방자치단체(주정부) 등과의 실질적인 투자협의 추진, 현지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등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쳐 러시아내 국민 브랜드로 선정됨.

III. 우리나라의 러시아 투자전략

1. 투자활성화 가능분야

□ 러시아 내수시장을 겨냥한 자동차산업(Automotive Industries)

- 러시아는 1억 4,150만의 인구(세계 9위, 유럽 1위)를 보유한 대국으로서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는 등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서구화 경향을 나타냄.
 - 2011년 기준, 러시아 GDP가 1조 8,578억 달러(세계 12위권)이고, 1인당 GNI가 9,910달러로서 세계은행 분류에 의하면, 상위 중소득국에 해당됨.
- 따라서, 우리 기업이 산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 내수시장 확대에 의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투자는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지난 수년간 러시아 자동차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향후 러시아 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 러시아 국민의 구매력 및 소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보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PWC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러시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65만 대로 유럽내 독일(163만 대)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판매시장(연중 303만대로 사상 최고치 기록)으로 부상한 바 있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2014년까지 러시아가 또 다시 유럽내 최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러시아 현지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부품 현지조달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고객에 대한 A/S 편의 제공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부품 업체의 현지진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완성차 생산업체에 대한 납품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현지 러시아내 자동차업체 및 글로벌 자동차업체로의 판로(프레스, 샤시, 사출, 내장, 시트, 전장 등) 확대도 가능함.
-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러시아 정부는 외국산 자동차 수입관세율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현재의 30%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수입관세 인하의 내수진작 효과 기대).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산업의 러시아 현지투자 유인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겠지만 자동차 관련 수출은 증대될 것으로 분석됨.

<표 4> 주요 기관의 러시아 자동차시장 전망

단위: 만 대

기 관	2011 ^e	2012 ^f	2013 ^f	2014 ^f
Global Insight	265	312	396	424
BMI	275	304	326	352

주: 연도 표기에 e는 추정치, f는 전망치임.

□ 소비패턴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재산업(Consumer Products)

-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으로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그 결과 구매력 증가 및 소비성향 증대로 고가상품에 대한 지출 증가, 소비패턴의 서구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러시아 인구의 7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도시지역의 구매력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매력평가(PPP) 기준¹⁾으로 연소득 5만 달러 이상 가구가 1천만을 넘는 등 중산층의 급증으로 내수시장이 확대됨.
- WTO 가입으로 유통 등 서비스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인 러시아는 대부분의 소비재를 유럽, 중국, 터키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재 산업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동 분야의 진출을 다각도로 모색할 만함.
- 현재 우리 기업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다양한 소비재산업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도 호전되고 있으므로 휴

1) 러시아 전체 평균치는 2011년 기준 16,852달러에 달함.



대폰, TV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및 현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1년 K팝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으로 일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러시아 국민도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식료품,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우리나라 문화를 수출 또는 현지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자원개발(Resource Sector) 연계사업

- 러시아는 부존자원이 풍부해 원유, 천연가스, 광물, 목재 등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자원민족주의 경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며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은 실정임.
- 2011년 기준으로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1,027만 배럴/일(세계 시장 점유율 12%), 천연가스 생산량은 6,297억 m³(점유율 22%) 수준임.

<표 5> 러시아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광물자원	매장량	세계 순위	세계 점유율(%)
천 연 가 스	45.7조 m ³	1위	23.7
석 탄	1,570억 톤	2위	19.0
철 광 석	250억 톤	2위	15.6
원 유	774억 배럴	7위	5.6

자료: British Petroleum.

- 원유 매장량의 대부분은 서시베리아와 볼가·우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현재 서시베리아 지역이 원유 생산량의 3분의 2, 볼가·우랄지역이 4분의 1을 차지함. 그러나 일부 대형 유전이 성숙기를 지나 고갈과 질 저하 현상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2009년 1월) 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러시아 정부는 발트해와 흑해를 경유하는 가스관²⁾ 건설을 통해 최근 우크

2) 러시아 서북부지역에서 발트해를 지나 독일로 들어가는 노드스트림(Nord Stream) 가스관(연간 550억 m³를 북유럽 지역 가스공급, 2012년 말 완공예정), 또 흑해연안에서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노선과 크로아티아에서 터키로 연결되는 노선인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연간 630억 m³를 남유럽 지역 가스공급, 2015년 완공예정) 등



라이나를 경유하는 수출물량을 줄이는 한편,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유럽 수출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에너지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자원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연해주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자원개발의 축이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³⁾.
 - 2007년 러시아 에너지·산업부는 동부 가스개발계획을 수립,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지역에 천연가스의 통합적인 생산, 운송 및 공급 시스템을 구축함.
- 특히, 우리나라와는 지리적 인접성, 잠재적 에너지 매장량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동부 가스개발계획 등 러시아의 자원개발 사업추진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 인프라(발전소,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및 자원개발 플랜트를 연계하는 패키지형태의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동부 및 극동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 원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극동(사할린 등)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할린 지역에도 LNG 프로젝트, 항만 건설, 광구개발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는 가스전 탐사, 가스·LNG 생산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자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스프롬 등의 가스전 개발 발주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 및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 기업의 단독투자는 사실상 어려우며, 러시아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진출 모색이 타당할 것으로 분석됨. 특히, 에너지 등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 또는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타당함.

3)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 수출의 80%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고 있는데, 2006년 이후 양국간 크고 작은 분쟁으로 러시아의 가스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4) 시베리아 동부 및 극동 지역의 육상(onshore) 천연가스 매장량은 52.4조 m³로 추정되어 현재 확인매장량 44.4조 m³를 추월함. 사할린 지역의 경우, 원유 104억 배럴, 천연가스 2조 7천억 m³, 석탄 180억 톤의 부존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 러시아 투자시 고려사항

□ 현지투자의 애로사항

- 러시아 투자의 최대 장애요인이던 투명성 결여,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 복잡한 법규 및 세제 등이 2011년 12월 WTO 가입으로 개선되고 있음.
-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는 관세 및 법인세 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IFC의 기업경영여건 평가에서는 2011년 말 기준, 평가대상국(183개국) 중 120위를 차지하는 등 투자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IFC): 120위 (평가대상 183개국, 2011)
 - 글로벌경쟁력지수 평가순위(WEF): 66위 (평가대상 142개국, 2011)
-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시 공사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해도 대개 허가 지연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소요되어 현지법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투자시 주의사항은 첫째,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 현지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둘째, 투자 지역의 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 등임.
 - 특히, 에너지 사업의 경우 가스프롬 등 일부 국영기업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업체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투자 성공요건

- 러시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공통점은 러시아의 비즈니스 환경(물류, 세무, 통관, 유통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긴밀히 구축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현지 바이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은 러시아 현지투자의 절대적 요건임.



- 러시아 투자에서 우리 기업의 우선적 고려사항⁵⁾
 - ① 투자입지 및 법적 문제: 투자를 위한 부지선정, 소유권 및 계약사항 등
 - ② 현지인력 관리: 현지 생산 및 판매법인의 인력 채용 및 업무교육 등
 - ③ 판매전략: 소비자계층 발굴, 마케팅(매출처) 및 경쟁업체 동향 파악 등
 - ④ 통관 절차: 수입 통관 및 로지스틱 등 고려

- 우리 기업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인에 대한 사고방식과 문화 및 거래관행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거래 무산, 러시아 기업의 국제상거래에 대한 경험 부족 등으로 양국 기업간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 있음.

- 한-러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러 비즈니스포럼 개최 등으로 최근 양국간 경제·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고무적으로 평가되나, 향후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러시아와의 거래 경험이 일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수출 및 해외투자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음. 러시아는 현지 자본시장이 비교적 덜 발달되어 있으므로 러시아 수입업체의 대금 결제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지금융(현지 금융기관 및 우리 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 해외투자금융 및 자원금융 등) 등을 통해 금융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부실장 조양현 (3779-5707)
yhjo@koreaexim.go.kr

5) 우리나라의 러시아 현지투자 기업 대상 조사결과(요약)